

經濟成長의 基本條件에 관한 比較史的 研究 —19世紀 産業革命史를 중심으로—

張 世 珍*

<目 次>	
I. 序 言	III. 需要側 條件
II. 供給側 條件	1. 市場條件과 主導產業
1. 發明과 技術進步	2. 國內市場
2. 賦存資源과 輸送手段	3. 國際市場
3. 資本蓄積	IV. 結 語
4. 勞動供給	

I. 序 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로서의 人間은, “學習”에 대한 本能的인 意志와 能力을 바탕으로 하여, 地球上의 다른 動物에 비교한 그의 相對的 地位를 꾸준히 向上시켜 왔다.⁽¹⁾ 自然과 나아가 人間自身을 統制·改善하고자 하는 人間の 꾸준하고 고통스러운 鬪爭過程中, 人類는 特定時機에 이르러서는 急激하고도 爆發的인 進步를 經驗할 수 있었다. 그러나, 生産技術·社會組織등의 急激한 進步가 약 一萬年前의 新石器時代의 出現과 6千年前的 티그리스(Tigris), 유프라테스(Euprates), 나일(Nile) 및 黃河流域에서 經驗된 이후, 人類는 적어도 16~17世紀에 이르기까지 長期的인 停滯를 면치 못하였다.⁽²⁾ 最近의 스퍼트(sput)는 급격한 工業化(industrialization)의 樣相으로 18世紀末 英國에서 出現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産業革命(industrial revolution)으로 命名되었다.

일단 英國에서 點火된 産業革命의 불길은 19世紀에 들어서면서 스칸디나비아에서 이태리半島에 이르기까지의 西歐諸國(스페인·포르투갈 除外) 및 大洋을 가로질러 美國,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번졌으며, 19世紀 後半에는 日本 또 러시아로, 좀 뒤

*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博士課程

(1) B.E. Supple, “The Historical Approach to Economic Growth,” in M.E. Falkus ed., *Readings in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A Study of Successful and Promising Beginnings* (Oxford Univ. Press, 1968), p.14; 本論議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人間の 基本的 特性을 “學習”에 둔 훌륭한 論據로는 G. Highet, *Man’s Unconquerable Min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4), pp.7-13. 參照.

(2) B.E. Supple은 長期停滯期間을 “잠정적으로” 2000B.C.에서 A.D.1600~1700으로 잡고 있다. B.E. Supple(1968), *op. cit.*, p.16. 이는 鐵器時代의 出現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鐵器의 出現은 新石器의 出現이나 中東古代文明의 發祥에 比肩할 만한 進步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늦게 20世紀에 이르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지로 擴散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南美·中東·東南亞 諸國에서도 經濟開發의 旗幟아래 產業革命의 過程에 進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이러한 產業革命의 과정은 科學的 經驗的 知識의 廣範한 利用과 特化된 資本集約的, 非人格的 大規模 市場生産의 展開에 의하여 特徵지워지며, 人口의 都市集中, 產業構造의 變動, 職業階級의 登場, 價值體系의 變化등 광범한 社會文化的 衝擊을 수 반하여 왔다.

人類의 급격한 進步의 과정, 더욱기 비교적 史料가 갖춰져 있는 產業革命의 과정이 “巨大한 情報의 源泉”⁽⁴⁾으로서 經濟史家내지는 經濟開發理論家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음은 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經濟史家의 관심은 대체로 (1) 產業革命의 過程을 記述하는 側面, (2) 產業革命의 現象을 說明하는 側面, (3) 產業革命의 經驗을 利用하는 側面으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었다.⁽⁵⁾

먼저, 經濟史家의 일차적 관심은 產業革命에 관한 歷史的 諸事實을 調查, 蒐集, 整理, 記述하는데 있다. 예컨대, 그는 特定經濟가 產業革命의 過程에 進入한 歷史的 背景, 產業革命의 產業別 部門別 擴散過程, 社會文化的 環境과의 關係, 나아가 多數經濟의 產業革命過程의 相對的 特性, 相互關係 등을 記述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는 史料를 調查, 蒐集하는 외에, 그들을 選擇, 分類, 配列하게 된다. 이와같이 歷史에 대한 理解(understanding)를 促進시키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特定한 體系 또는 前理論(pretheory)을 明示의 由든 暗默의 由든 갖게 된다는 점에서, 아무리 純粹한 歷史(pure history)의 記述이라 하더라도 後述하는 歷史의 說明과 重複되는 側面을 갖기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產業革命史에 있어서, 그 現象의 說明과 별도로 過程의 記述이 독자적으로 問題되는 경우는 드물다. 本稿에서는 產業革命의 基本條件에 관한 많은 史料가 引用될 터이지만, 產業革命의 過程을 구체적으로 記述하는 것은 本論議의 主題에서 제외된다.

다음에, 經濟史家는 위의 ‘記述’을 바탕으로 하여 產業革命의 과정에서 나타난 諸要因 내

-
- (3) E.E. Hage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2nd ed.,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62), 金瓊東譯, 經濟社會學(乙酉文化社, 1965), pp.39-40 參照.
- (4) R.M. Hartwell,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 Essay in Methodolgy,” in *Economic History Review*, Aug. 1965, rep.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 1967), p.30.
- (5) 물론 이러한 區分은 다소간 恣意的인 것이다. 아마도 記述—說明—利用은 하나의 連續的인 過程으로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密接하게 相互關聯되어 있다. 正確한 記述은 合理的 說明의 前提가 되며, 合理的 說明은 合目的的 利用의 前提가 된다. 逆으로, 利用에 있어서의 價值觀·이데올로기는 說明의 體系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說明의 體系는 記述할 史料의 選擇·配列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는 諸現象 相互間的 “關係”를 因果的으로 說明(causal explanation)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그는 特定經濟의 產業革命이 特定한 時機에, 特定한 速度로, 特定한 패턴으로, 特定한 社會文化的 特象을 수반하고 進行된 理由를 說明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意慾的인 研究가 오랫동안 進行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成果는 반드시 樂觀的인 것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史料의 選擇, 說明方法에 따라 特定經濟에서는 說得的이었던 產業革命의 說明이 다른 經濟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產業革命史 接近에 대한 方法論的인 反省⁽⁶⁾과 함께, 比較史的 研究라는 事實的 自己檢證手段에 의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歷史的 普遍性⁽⁷⁾의 追求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英國, 獨逸, 프랑스, 美國, 日本, 러시아등 先進諸國이 產業革命이라는 급속한 工業化過程을 比較史的으로 考察함으로써, 特定經濟의 歷史的 個別性을 捨象한 產業革命에 있어서 普遍的 因果關係——특히 經濟成長의 基本條件을 抽出, 吟味하는 것이 本論議의 重要한 테마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經濟史家 내지는 經濟開發 理論家는 위의 歷史的으로 抽出된 普遍성과 現在

- (6) 이것은 經濟史의 本質, 나아가 史實의 本質에 대한 哲學的 論爭으로 飛化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筆者의 基本立場을 밝혀 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먼저, 筆者로서는 經濟史와 經濟理論의 區分은 主題의 相異라기 보다 接近方向의 問題로서, 相互對立되는 것이 아니라 補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cf. E.F. Hecksher, “A Plea for Theory in Economic History,” in M.E. Falkus ed. (1968), *op. cit.*, p.423(經濟史를 歷史學에 귀속시키는 T.S. Ashton, “The Relation of Economic History to Economic Theory,” *Economica*, May 1946, p.84, 새로운 歷史學으로 定義하는 J.H. Clapham, *The Study of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1929, pp.5-40도 보라). 또한, 歷史的 接近이 說明과 普遍化를 배척한다(특히, J.H. Clapham, “Economic History as a Discipline,” in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Macmillan, 1930, reprinted in M.E. Falkus ed. (1968), *op. cit.*, p. 418-19)기 보다는, “典型的인 狀況 및 關係의 確立”이 經濟歷史家의 使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A. Gers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2,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op. cit.*, pp.16-17.). 나아가 社會科學의 法則論的 接近方法과 近析論的 接近方法의 차이는 意志·價値·歷史性에 대한 存在論的·認識論的 差異(李奎浩, “社會科學方法論의 哲學的 反省,” 李奎浩外編, 社會科學의 方法論, 玄岩社, 1974, pp. 10-28; 同, “社會科學 方法論의 哲學的 反省 兩論,” 上揭書, pp. 48-72)라기 보다는, 學問自體에 대한 價値觀에서 충돌되고(李永鎬, “社會科學과 經驗的 接近法,” 上揭書, pp.29-47; 金鎮泰, “人文科學에 있어서의 說明과 理解,” 上揭書, pp.108-40 參照), 客觀的으로 一般化的 有用性(P.D. McClelland, *Causal Explanation and Model Building in History, Economics and the New Economic History*, Cornell Univ. Press, 1975, pp.71-89 參照)의 立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7) 歷史的 個別性이 더욱 強調된 면도 없지 않다. 比較史的 方法에 의하여 產業革命의 主要要因으로서 人種, 地理, 氣候, 宗教, 國民性, 傳統文化 등의 非經濟的 特性이 다소간에 民族主義的·運命論的 偏向을 가지고 등장하였으며, 英雄的인 政治家, 發明家, 企業家 또는 特定한 歷史的 事件이 동원되기도 하였고, 資源, 資本, 勞動, 市場 등의 經濟的 메카니즘이 研究되기도 하였다. 이들 모두가 각각 다소간의 說得力을 갖는 것은 물론이지만 일반적인 취약점으로서 事後的 說明에 바탕함으로써 因果關係의 混同이나 循環論에 빠지기 쉽고, 產業革命의 綜合的, 開發的 性格을 輕視함으로써 連續的 相互調整關係의 파악이나 重要性의 評價에 混線을 보이며, 靜學的 方法에 依存하며 動學的 過程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狀態에 대한 認識을 바탕으로, 未來를 豫測하거나 經濟開發政策에 기여하고자 할 수 있다. 예컨대, 그들은 先進諸國의 産業革命과 類似한⁽⁸⁾ 環境을 造成함으로써 工業化의 過程을 促進하거나, 産業革命의 敎訓에 맞추어 産業構造는 改遍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같은 歷史的 經驗의 活用으로서의 政策變數의 選定이나 操作方法은, 그 前提가 되는 因果關係의 普遍性과 正確한 狀況認識은 물론, 經濟開發에 관한 價值觀에도 크게 影響을 받는 複雜한 樣相을 가지게 되나, 本論議에서는 이를 結論部分에서 간단히 檢討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II. 供給側 條件

社會文化的 環境 또는 企業家精神과는 獨立的으로 産業革命을 促進한 經濟的 與件을 究明하는 것은 그 自體로서는 물론, 産業革命의 歷史的 經驗을 開發政策에 活用하는데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⁹⁾ 이와같은 産業革命——經濟成長의 條件을 抽出·分類함에 있어서는, 理論的으로는 諸要因이 外生變數로 취급될 비슷한 根據와 重要性을 가지며, 實際的으로는 這間의 歷史的·理論的 研究成果를 吸收하기에 편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綜合的인 判斷은 直觀에 크게 의존하며, 따라서 다소간의 恣意性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¹⁰⁾ 이상의 制約事項을 염두에 두고, 먼저 産業革命의 急速한 工業化 過程에서 供給側의 主要要因으로 간주되는 技術 資源, 資本, 勞動의 促進的 또는 制約的 機能에 대해서 考察하는 것이 이 章의 주요 과제이다.

1. 發明과 技術進步

J. A. 슈페터가 “經濟的 進步가 資源의 增加與否와는 관계없이 現存하는 資源을 相異한 方法으로 使用하는 것에 주로 의존함”⁽¹¹⁾을 指摘한 이후, 技術進步내지는 革新의 重要

(8) 類似性的의 意味에 대해서는 P.D. McClelland(1975), *op. cit.*, pp.75-77 參照.

(9) 社會文化的 要因내지는 主體的 要因으로서의 企業家精神 등의 除外에 대해서 批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는 企業家精神 創造의 冒險精神과 物質指向의 價值觀은 自然的·本來的 發生物이라기 보다는 社會文化的 環境의 所産(특히, E.E. Hagen (1962), *op. cit.*; idem, “Analytical Models in the Study of Social System,” *A.J.S.*, Sept. 1961)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로 歸一시켜서 考察할 수 있을 것이다. 産業革命의 過程이 特定한 價值價值體系를 가진 經濟主體의 客觀的 環境에 대처하는 行動으로 說明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企業家精神 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특히, A.H. Cole,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i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1946, rep. in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pp.1-15), 오늘날 開發途上國家의 政策變數로는 대체로 무의미하거나 效果의 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除外되었다. 또한 政策當局의 役割(특히 A. Gerschenkron(1962), *op. cit.*, pp. 16-41. 參照)이 除外된 것은 政策中立의인 상태를 考察하기 위한 것이다.

(10) Cf. R.M. Hartwell (1965), *op. cit.*, 특히 pp. 192-93.

(11) J.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49), p. 68.

性은 거의 모든 經濟學者에 의하여 同意되었다. ⁽¹²⁾ 實際로, 產業革命의 標準經路를 마련하였던 英國에 있어서, 纖維·製鐵·汽船·機械工業 등에 관련된 發明의 歷史는 실로 눈부신 바가 있었다. 특히, 英國의 初期產業革命을 主導한 綿工業의 경우에는 불과 20年未滿에 제니 紡績機(1770年), 아크라이트 紡績機(1769年), 무울 紡績機(1779年), 染綿機(cotton printing machinery; 1783年), 力織機(1785年) 등의 중요한 發明이 잇달아 出現하였고, 또한 비슷한 時期選擇이 立地에 자유로운 動力源으로서 蒸汽機關(1769年; 1776~81年 改良)이 發明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諸發明이 產業革命初期의 綿工業의 發展에 크게 기여했음은 否認할 수 없는 일이며, 이에 따라 한때 이들 發明家에 대한 英雄崇拜의 研究가 盛行되었음을 窺할 것이 못된다.

그러나, 技術進步의 重要性和 發明의 重要性이 同一視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技術進步는 資本調達, 購買, 生産, 販賣, 人間關係 등 企業經營 全般에 관한 것으로서, 보통의 發明보다는 훨씬 廣義의 生産方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技術進步는 새로운 生産方法의 考案 외에, 經濟的 諸條件의 綜合的 考慮하에 企業家가 이를 選擇, 適用, 成功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이다.

어떤 發明은 經濟的 與件의 不利 또는 企業家精神의 缺如에 의하여 棄却된다. 英國에서도 원래 發明과 革新사이에는 상당한 時差가 있었으며, ⁽¹³⁾ 또한, 프랑스의 중요한 化學的 發明, 예컨대 N. 르브랑스(Nicholas Lebrance; 1791年), G. 루사크(Gay Lussac; 1835年)의 發明이 英國 등 外國에서 먼저 利用되었음은 注目할 만하다. 더욱 印象的인 教訓은 거의 같은 정도로 發明의 貯水池에 接觸하여 왔으면서도, 이를 導入하여 이미 성공적으로 產業革命을 이룩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比較함으로써 얻어 질 수 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나 印度는 다같이 西歐諸國과의 接觸機會가 日本에 비하여 훨씬 많았는데, 왜 技術進步가 效率의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는가? 비슷한 技術導入 獎勵政策을 마련하였던 獨逸과 프랑스에서 技術進步의 속도가 그토록 相異한 理由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發明이 產業革命——工業化의 原動力으로 機能하러던 이에 적합한 經濟的

(12) 예컨대, R.M. Solow에 의하면, 1909~49年 사이의 美國의 勞動單位當 產出高의 增加 率 87~90%가 技術進步라는 이름의 廣範한 變化——科學的·工學的 進步, 產業的 改善, 經營方法의 改善, 勞動의 教育訓練에 起因한다고 한다. R.M. Solow, "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 1957,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Growth*,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 1971, pp.271ff. 비슷한 研究結果의 紹介로는 B. Higgins, *Economic Development: Problems, Principles and Policies* (2nd ed.; New York: W.W. Norton, 1968), pp. 425-31.

(13) 產業革命期에는 時差가 크게 短縮되지만, 因果關係의 方向은 一方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與件과 企業家精神이 필요하다는 점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¹⁴⁾

또한 發明自體가 企業側에서 제기된 必要性에 의하여 誘導될 수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¹⁵⁾ 高價의 未熟練 勞動供給이라는 條件下의 美國에서 標準의 部分品과 自動化工程이 發明된 것이 하나의 例일 것이다.

2. 賦存資源과 輸送手段

主導産業 및 그 補助·補完産業(前方 및 後方聯關産業)에 이용되는 原材料의 供給, 특히 天然資源의 賦存條件은 産業革命 過程의 중요한 制約 또는 促進要因이었다. 必要한 資源이 상당한 收穫遞減을 보인다면, 工業化에 集約된 諸要因의 累積的 相互擴散作用은 일정한 限界에서 萎縮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18~19世紀 當時의 技術條件에 의하면, 石炭과 鐵은 특히 중요한 地下資源이었다.⁽¹⁶⁾ 美國의 成功的인 産業革命의 過程을 說明하는 데엔 石炭, 鐵 등 풍부한 地下資源의 賦存을 빼 놓기 어렵다.⁽¹⁷⁾ 逆으로, 프랑스의 경우, 石炭의 稀貴⁽¹⁸⁾는 鐵工業·鐵道産業·機械工業 등의 發達에 커다란 障礙要因이 되었다.⁽¹⁹⁾ 그밖에, 水力資源은, 當時의 중요한 에너지資源으로서, 英國·美國의 初期以後의 地域集中的 産業革命過程을 說明하여 주는 要因이다.

石炭·鐵 등의 重貨物 輸送과 관련하여, 특히 産業革命 初期에 있어서의 地域의 特化와 市場統合에 船舶은 중요한 機能을 담당하였다. 특히, 많은 江湖와 너른 海洋은 英國이 産業革命을 先導할 수 있었던 중요한 與件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日本도 島嶼國으로서 유사한 地理的 惠澤을 享有할 수 있었던 것이다.⁽²⁰⁾ 逆으로, 프랑스의 경우, 石炭資源의 不足

(14) 에컨대, 하바쿠크는 技術模倣의 成功條件으로서, ① 國內市場의 代替의 開發, ② 完만한 技術導入, ③ 先行의 所得·資源·技術·組織의 存在를 提示하고 있다. H.J. Habakkuk, "The Historical Experience on the Basic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org. in L.H. Dupriez ed., *Economic Progress* (1955), pp.149-69, ext. in M.E. Falkus ed. (1968), *op. cit.*, p.38.

(15) induced technical progress에 대한 一般的 紹介로는 P.A. Samuelson, *Economics* (8th ed.; McGraw-Hill, 1970), p. 726 註를 보라.

(16) 石炭, 鐵 외에 銅, 亞鉛, 鉛, 朱錫 등이 冶金業에 필요한 主要地下資源이었다. 美國의 경우엔 이들의 資源도 풍부하였으나, 프랑스는 이들을 거의 輸入에 의하여 調達하였다.

(17) H.J. Habakkuk and M. Ponstan, *The Industrial Revolutions and After: Incomes, Population and Technical Change*(II) (Cambridge Univ. Press, 1965), p. 689.

(18) 石炭生産에 대한 강력한 獎勵 및 保護政策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1830~1910年 사이 國內石炭消費量의 25~45%를 輸入에 依存하였고, 石炭價格은 英國의 1.5倍, 獨逸의 1.2倍, 美國의 2倍에 해당하였다. 프랑스는 당시 西歐諸國 중 유일한 石炭輸入國이었으며, 그 결과 코크스 製鍊法의 導入이 크게 늦어졌다. R.E. Cameron, "Economic Growth and Stagnation in France: 1815~1613," org. in *Journal of Modern History*, Mar. 1958, rep. in B.E. Supple ed., *The Experience of Economic Growth: Case Studies in Economic History* (New York: Random House, 1963), p.334.

(19) H.J. Habakkuk (1955), *op. cit.*, p. 39.

(20) 島嶼國으로서의 條件은 政治的 安定的 要因으로 꼽히기도 한다.

은, 生産地와 消費地가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適切한 重貨物 輸送手段이 없었던 점에서 더욱 심각한 障礙要因이 되었던 것이다. (21)

産業革命的 과정에서 運河·鐵道등의 大量輸送手段은 自生的 또는 政策的으로 활발히 開發되었다. 무엇보다도 英國의 경우 여러 江湖를 연결하는 運河組織과 鑛工業團地·消費地를 연결하는 鐵道網이 일찌기 完成되었으며, 美國에서는 “東西連結의 大動脈”인 에리이(Erie)運河가 개발되는가 하면, 鐵道景氣(22) 이후 全國의 鐵道網이 形成되었다. 한편, 獨逸의 경우에도 政治的 統合이 이루어지는 1840~68년에 걸쳐 東部の 베를린과 西部의 쾰른을 중심으로 한 鐵道網이 國家의 誘導政策下에 급속히 발달되었으며, 러시아에서도 뒤늦은 産業革命에 先行하여 國家의 강력한 主導下에 鐵道産業에의 방대한 投資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大量輸送手段의 發達は 産業革命的 擴散過程을 크게 促進하였으며, 실제로 産業革命的 遲進兒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1840年代 後半에 鐵道가 급속히 開發된 이래 諸産業의 加速的인 成長이 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23)

이러한 歷史的인 經驗은, 社會間接資本에 大量投資가 工業化의 先決條件이라는 P.N. 로젠슈타인 로단, H.W.싱거 등의 빅 푸쉬(big push)理論의 實證的 根據로 提示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英國은 물론 相對的 後進國이었던 日本에서도 社會間接資本에의 大規模投資는 다른 主導産業의 發達에 後行한 것이었다. 또한, 美國, 더우기 獨逸의 경우에 있어서도 鐵道등 大量輸送手段의 完成에 훨씬 앞서서 産業發達과 地域特化의 現象이 뚜렷이 나타났던 것이다. 요컨대, 社會間接資本의 大規模擴充은 産業革命的 重要한 促進要因이긴 하지만, 先決條件이나 必須要件은 아니었다. 實際로, 러시아의 경우처럼 國力培養이라는 強力한 이데올로기가 作用한 몇몇 例外를 제외하고는, 大量輸送手段의 發達도 主導産業의 後方連鎖效果에 크게 依存하여 왔으며, 적어도 원래 빅 푸쉬理論에서 받는

(21) 당시 프랑스의 중요한 工業都市였던 알사스, 파리는 중요한 石炭鑛區였던 쎄에틴, 노르등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프랑스의 道路網은 썩잘 정비되었으나, 石炭 등 重貨物의 輸送手段으로는 不適合하였다. 運河建設計劃은 자주 延期되어 斷片的인 채로 남아 있었고, 鐵道の 利用은 19世紀中葉 以後에야 本格化되었다. 이에 따라 막대한 輸送費가 所要되었는데, 예컨대, 벨기에에서 17프랑에 購入한 石炭이 파리에서는 輸入關稅을 포함하여 프랑에 供給되었다. R.E. Cameron (1958), *op. cit.*, p. 334; C. Fohlen, “La Rivoluzione Industriale in Francia,” *Studi Storici*, II, 1961, trans.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France,” in R.E. Cameron ed., *Essays in French Economic History*, Richard D. Irwin, 1970, p. 210.

(22) 鐵道産業은 W.W. Rostow에 의하여 美國 産業革命的 主導産業으로 評價되었다.(그러나, 後述(pp. 17-18)하는 바와 같이 美國의 初期産業革命을 主導한 것은 역시 綿工業일 것이다.)

(23) 1845~50年 사이에 프랑스의 鐵道는 總延長 883km에서 3,010km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후, 1851~73年 사이에 프랑스의 銑鐵生産增加率은 年平均 1.7%에서 5.2%로, 石炭生産增加率은 年平均 4.9%에서 6.1%로 각각 증가하였다. C. Fohlen(1961), *op. cit.*, p. 222.

인상보다는 훨씬 漸進的이고 斷片的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3. 資本 蓄積

産業革命은 資本主義의 出現과 동시대적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資本⁽²⁴⁾은 資本主義의 生血로서 생각되었기 때문에, 經濟史家의 관심이 産業革命의 始動的 要因으로서⁽²⁵⁾ 資本의 本源의 蓄積에 집중되어 왔음은 일단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英國의 경우 重商主義時代에 蓄積된 商業資本과 17世紀末 이래 18世紀初에 이르기까지 地主·貴族階級에 蓄積된 農業資本이 産業革命初期의 産業資本으로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도 産業革命에 앞서 1818年 以來의 貿易 및 船舶業의 發達로 東北部地方에 상당한 商業 및 前工業資本의 蓄積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이저維新(1868年) 以來의 農業技術 및 農業組織의 改善으로 야기된 農家所得의 增加分은 租稅로 吸收되어, 日本 産業革命期の 産業資本의 主要한 源泉이 되었다.⁽²⁶⁾

이러한 英國, 美國, 日本에서의 資本의 本源의 蓄積過程에서 印象의인 사실은 高度의 資本集中現象이 併行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資本의 流動性이 制限되어 있던 當時의 狀況에서 企業家의 資本調達活動을 容易하게 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英國·美國은 특히 貿易業部門에서, 日本은 특히 農業部門에서 産業革命以前에 自生的인 金融組織이 발달되어 있어서 企業金融을 도왔으나, 이들은 短期運轉資本을 중심으로한 消極的인 役割만을 담당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獨逸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는 分散된 非流動的인 小規模 資本을 大規模 産業資本으로 轉換시키기 위하여 積極的인 銀行의 役割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前述한 日本의 경우에도 大規模 投資는 特專依存的인 “財閥”이나 株式會社가 擔當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資本의 本源의 蓄積은 더욱 微弱하였으며, 鐵道産業에의 大規模投資에서 보듯이 國家의 強力한 介入이 要請되었던 것이다.

(24) 理論의 입장에서 資本은 廣義의 所得(廣義)을 위하여 備蓄된 生産된 經濟財로서, 生産性 또는 未來指向性的의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定義가 가능할 것이다. Cf.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London: Macmillan, 1949, pp.647-51. 資本의 具體的인 概念과 集計方法 등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論爭對象으로 되어 있으나, 經濟史에서 거론되는 資本은 주로 企業本位의 去來資本(trade-capital)의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서, 보통 資本蓄積이라 함은 生産된 財貨의 有形·無形의 備蓄뿐만 아니라, 企業家에로의 資源支配權의 集中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5) 나아가 本源의 蓄積資本의 “獨自的인 運動法則”으로 産業革命 등의 全過程을 說明하고자 하기도 한다.

(26) 農家所得뿐만 아니라, 원래 「사무라이」階級에 流入될 部分까지 租稅로 吸收되었으며, 그 결과 富農 및 사무라이階級の 經濟的 地位를 크게 몰락시켰다.

이러한 資本의 蓄積과 集中現象은 오늘날에도 強制貯蓄이나 富의 偏重 또는 大規模의 外資導入이 經濟開發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데 대한 歷史的 證據로서 끈질 引用되기도 한다. 그 代表的인 論據로서 低所得이 低貯蓄, 低資本, 低生産을 통하여 다시 低所得을 야기한다는 R. 너시의 “貧困의 惡循環論”(27)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理論이 經濟開發의 漸進性을 설명하는데 利用된다면 몰라도, 그것만으로 오늘날 低開發經濟의 낮은 經濟成長率을 說明하고자 하는 것은 곤란하다. 19世紀 中葉 以後에 產業革命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당시의 低所得國이 오늘날의 低所得國보다 1人當國民所得이 높았음은 널리 指摘되고 있다. (28) 그러나, 所得이 낮으므로 貯蓄率도 낮을 것이라는 推論은 다분히 民族主義的인 幻象에 불과하다. (29) 즉, 先進國民의 입장에서는 오늘날의 低開發國의 所得이 겨우 生理的 必要를 충족시키는데 汲汲한 것으로 보일런지 몰라도, 거기에도 5~10%의 貯蓄할 여유는 있는 것이며, 또 그로써 產業革命을 促發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30) 나아가, 富의 偏重·外資導入등의 政策手段의 適合性은 經濟厚生에 대한 動學的인 效果를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判斷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過度한 富의 偏重은 產業革命期의 自然스러운 現象도 아니었고, 또한 그 效果가 반드시 友好的인 것은 아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1) 사실상, 獨逸, 러시아등 당시의 相對的 後進國에서 볼 수 있었던 銀行 또는 國家에 의한 資本集中의 努力도, 產業革命에 不可缺했다기 보다는, 大規模資本을 所要하는 石炭, 鐵鋼, 鐵道産業을 중심으로 急速成長을 追究하는 政策的인 經濟學의 所産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大規模 投資가 產業革命 내지는 工業化의 과정에서 어떤 效果를 가져 왔나에 대해서는 별도의 考察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32) 일반적인 推測과는 달리 日本의 產業革命이 政府依存的인 大規模 企業 보다는 대개는 農家의 副業으로 행해진 小規模 資本의 粗絹産業에 의하여 主導되어 왔음은 教訓的인 史實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33)

(27)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3).

(28) 金宗炫,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에 관한 比較史의 研究”, 經濟論集, 1971年 6月, p. 6과 p. 8; S. Kuznets, *Economic Growth and Structure: Selected Essays* (1965), pp.177-85; P.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965), pp.5-19; 所得과 市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本稿 pp. 20ff. 參照.

(29) 貯蓄의 상대적인 크기(貯蓄率)이 문제됨에 주의할 것. 低所得——低貯蓄率은 絕對所得假說의 입장에서 주장되나, 오늘날 대부분의 經濟學者는 이에 反論하고 있다. cf. E. Shapiro, *Macroeconomic Analysis* (3rd ed.; Harcourt Brace Javanovich, 1974), pp. 115ff., especially pp.133-38.

(30) W.W. Rostow에 의하여 跳躍(take-off)의 先決條件으로서의 貯蓄率은 5~10%이며, W.A. Lewis는 5~6%의 貯蓄率로 經濟開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31) 富의 偏重이 需要의 同質性에 미치는 影響은 本稿 pp. 21-22 參照.

(32) 印度의 誇示의 大規模投資는 중요한 開發失敗要因으로 指摘되고 있다.

(33) 本稿 pp. 17-18 參照.

또한, 産業革命期の 海外資本의 役割에 대해서도 상당한 誇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경우, 鐵鋼産業에 所要된 資本의 大部分(80~90%)을 海外資本으로 充當하였었다는 것이 강조되지만, 이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성급한 國力培養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例外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世紀初(특히 1900~10年)에 캐나다의 産業發達에 필요한 資本의 거의 半額이 海外로부터 調達되었다는 것이 자주 인용되지만, 사실 캐나다는 19世紀末에 이미 충분한 工業化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獨逸의 경우,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등으로부터의 資本流入이 있었으나 그 役割은 輕微한데 그쳤으며⁽³⁴⁾, 日本이나 프랑스는 海外資本의 役割은 거의 全無한 실정이었다.⁽³⁵⁾ 요컨대, 開發政策上 海外資本이 經濟成長 및 經濟福祉에 어떠한 效果를 갖는가 하는 問題와는 별도로, 産業革命이 거대한 外生的 資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추진되었다는 論據를 밑받침 할만한 歷史的 證據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아마도 産業革命期 産業資本의 가장 중요한 源泉은 産業利潤 자체였을 것이다.⁽³⁶⁾ 産業資本의 動學的 擴散過程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當時의 主要産業이 相對적으로 높은 利潤을 享有하고, 또한 그것이 企業外로 流出되지 않고 끊임없이 再投資되었어야 했다. 먼저 相對적으로 높은 利潤의 確保는, 市場擴大를 前提로한 당시의 급속한 生産性向上에도 불구하고, 賃金이 硬直적이었고, 新規企業의 加入이 상당한 정도로 봉쇄되었었고, 또한 상당한 利潤 인플레이션⁽³⁷⁾이 進진되었다는 점으로부터 가능하였을 것이다. 中期 빅토리아時代以後의 英國. 또는 두 戰爭사이의 日本의 産業資本의 蓄積과정은 그 전형적인 例인 것이다. 높은 企業利潤은 1890年以前의 獨逸, 美國, 프랑스에서처럼 國家의 各種 保護政策에 의하여 促進되기도 하였다. 確保된 企業利潤이 끊임없이 企業에 再投資되는가 與否는 企業家精神의 特性——勤儉精神, 創造的 冒險精神, 物質指向의 價値觀——에 크게 依存하였을 것이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英國, 美國, 獨逸, 日本과는 달리, 企業利潤의 상당 부분이 土地, 貴金屬, 貨幣保藏, 海外部門 등으로 流出되어, 再投資에 의한 産業資本의 蓄積에 失敗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에, 浪費를 철저히 排除한 留保利潤의 企業擴大와 技術革新에의 끊임없는 再投資——이것이 당시 産業革命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의 企業家의 典型的인

(34) D.S. Landes,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19th Century Germany,"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History: Proceedings*, Stockholm, 1960, pp. 83-86. ext. in M.E. Falkus ed. (1968), *op. cit.*, pp.155-58.

(35) H.J. Habakkuk (1955), *op. cit.*, p. 42.

(36) 특히 英國의 경우 共同企業組織 및 銀行의 機能에 대해서는 金宗炫教授의 “産業革命과 企業家活動(其二), 經濟論集, 1973年 3月, pp.49-60 參照.

(37) 이윤 인플레이션의 存在에 대해서는 케인즈가 示唆하고, 해밀턴이 史實로서 證明한 바 있다.

資本調達方法이었던 것이다.⁽³⁸⁾

이러한 몇가지 觀察은 資本의 本源의 蓄積도, 餘他の 要因들과 마찬가지로, 다만 企業家의 活動을 促進 또는 制約하는 要因의 하나이며, 그것만이 獨自的 또는 排他的으로 중요하다는 主張이 誇張임을 指摘하여 준다. 어떠한 資本의 蓄積과 集中이 獨自的인 運動法則에 따라 企業家精神을 生成시키고 産業革命의 諸過程을 수행한다든가, 반대로 資本蓄積의 缺如가 企業家精神을 致命的으로 萎縮시킨다는 主張은 이데올로기의 幻象에 불과하다.⁽³⁹⁾ 生産性向上, 技術進步의 機會는 小規模의 工業 또는 農業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며, 나아가 企業家가 그 活動에 필요한 資本을 調達하고 蓄積할 機會는 産業革命의 어느 過程에서도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4. 勞動 供給

産業革命期는 時代的으로 人口의 急速한 成長期와 一致하였다.⁽⁴⁰⁾ 人口成長은 出生率의 增加, 死亡率의 減少 및 나라에 따라서는 移民의 流入 등에 의한 것이었으며, 産業革命期의 풍부한 勞動力의 源泉으로 指摘되고 있다. 특히, 美國의 急速한 人口成長은 産業革命 成功의 중요한 要因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반대로 프랑스 人口의 相對的 停滯現象은 産業 革命이 遲進하였던 중요한 原因으로 꼽히고 있다.

어떠한 原因에 의하여든 간에 急速히 成長된 人口가 國民經濟에 效果的으로 吸收된다면 적어도 經濟의 外延的 成長에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됨은 分明하다. 그러나, 人口成長은 풍부한 勞動力의 供給보다 後述하는 市場規模의 擴大와 밀접히 關係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人口成長의 勞動力 供給效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의 두가지 점을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⁴¹⁾ 첫째, 人口成長의 勞動力 供給效果 내지는 勞動力의 豐富性如何는 市場 賃率 외에 勞動의 技能이나 適用되는 生産技術 및 餘他 生産要素의 賦存量등에 의존하는 勞動의 生産性的 立場에서도 考察되어야 하며, 人口成長이 有效한 勞動力 供給效果를 갖기 위해서는 企業家가 이를 다른 生産要素와 效率的으로 組織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오

(38) 金宗炫(1973), 前掲書, pp. 45-46; T.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revised ed.; 1962), p.97. 企業家精神의 特性 외에 당시의 낮은 利率은 再投資의 過程을 促進하였으며, T.S. Ashton은 이를 英國 産業革命의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H.J. Habakkuk에 의하면, ① 當時의 技術은 小規模資本으로 利用할 수 있었고(러시아 除外), ② 높은 企業利潤(留保利潤에 再投資는 利率과의 관련이 적다)이 확보될 수 있었으며, ③ 불완전하나마 金融市場이 存在하였다(러시아 除外)는 점에서, 低利率의 效果가 誇張되어 왔다고 批判한다. H.J. Habakkuk(1955), *op. cit.*, p.44.

(39) 資本의 側面에서 資本主義發達史를 研究하는 것이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구체적 인 單一의 存在物로 想定(reify)하거나 擬人化하는 것은 歷史를 왜곡하는 위험이 따른다.

(40) 人口成長의 長期 趨勢의 劇的인 表示로는 L.K.Y. Ng ed., *The Population Crisis* (Bloomington, 1965), p.26, rep. in B. Higgins (1968), *op. cit.*, p.37, chart 2-1을 보라.

(41) 國內市場과 相關한 人口成長의 구체적 論議로는 本稿 pp. 19-20 參照.

늘날 많은 低發開國家에 있어서 오히려 過剩人口⁽⁴²⁾가 經濟成長效果를 蠶食하고 있음을想起한다면 이러한 制約의 중요성은 명백하게 될 것이다. 둘째, 人口問題를 考察할 때 항상 問題되는 것이지만, 人口成長과 經濟成長 사이의 因果關係의 方向에 유의하여야 한다. 勞動需要의 增加가 직접 人口增加를 야기하리라는 것을 맬더스의 幻想으로 치더라도, 所得 및 生活水準의 向上은 특히 幼兒 및 老人의 死亡率을 크게 減少시켜왔다. 또한, 先進經濟의 相對的 高賃率과 풍부한 雇傭機會는, 產業革命期에 있어서의 英國에의 에이레 移民이나, 產業革命期 이후 오늘날에까지 이르는 美國에의 各國 移民의 流入에서 보듯이, 海外移民의 流入을 통한 人口成長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人口增加와 더불어 다른 部門, 특히 農業部門으로부터의 勞動力 移動은 產業革命期에 필요하였던 近代的 工業勞動力의 중요한 源泉이었다.⁽⁴³⁾ 또한, 勞動生産性이 相對적으로 높은 近代的 工業部門으로의 勞動力移動은 經濟全體의 內包的 成長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產革命期の 勞動力移動에 대한 經濟史家의 關心은 그것이 工業部門에서의 雇傭機會의 增大로 誘導되는 局面보다는, 그러한 과정에서 勞動의 流動性을 制約하는 前近代的 制度들이 붕괴되는 局面에 주어져 왔다. 換言하면, 勞動力의 移動은 市場機能에 의한 效率的 資源配分の 結果라는 經濟理論家의 說明에 대해서, 이러한 市場의 資源配分機能을 歪曲시킬 수 있는 歷史的인 偏向의 趨移를 理解·說明하는 것이 經濟史家의 중요한 課題이었던 것이다. 勞動의 流動性을 制約하였던 前近代的 要因으로는 職業世襲制를 비롯하여, 慣習과 傳統에 대한 尊重, 進步的 諸變化에 대한 保守主義的 反動등을 들 수 있다. 물론 諸要因의 保守性의 有無, 나아가 그 程度는 勞動力의 移動(工業部門의 雇傭機會增大에 의하여 誘導될 수 있다)에 의하여 事後的으로 判斷될 수 밖에 없다는 難點이 있지만, 몇몇 制度的 裝置와 歷史的 事實의 保守性에 대해서는 質的인 檢討가 가능할 것이다.

넬리 알려진 바와 같이, 產業革命期の 工業勞動力은 주로 農業部門에서의 勞動力 流出로 充當되었다. 이는 產業革命이 農業社會를 토대로 出現되었음⁽⁴⁴⁾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기

(42) 특히 低發開農業國家에 있어서 過剩人口의 理論的 定義와 分析으로는 N. Georgescu-Roegen, "Economic Theory and Agrarian Economics," *Oxford Economic Papers*, February 1960, reprinted in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Development* (The Inst. of Eco. Res., Seoul National Univ. 1965), pp.43-77 參照.

(43) 工業部門의 雇傭增加 또는 都市人口의 成長이 平均的인 人口成長보다 훨씬 급속하였다는 점에서 勞動力의 移動이 人口成長보다 중요한 勞動力供給의 源泉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4) 農業社會 또는 工業社會로부터의 移民에 의한 新設社會에서도 產業革命이 수행되었으나, 그 토대는 결국 農業社會로 歸一한다. 이는 產業革命의 原動力이 되는 諸文化的 所産의 蓄積이 遊牧社會 등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Cf. E.E. Hagen (1962), *op.cit.*, p.54.

도 할 것이다. 원래 農業社會는 村落⁽⁴⁵⁾이라는 經濟共同體를 구성 단위로 하며 自然(神), 年長者(經驗)에 대한 權威主義의 畏敬과 土地에 대한 審美的 愛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精神的·文化的 特性은 封建의 秩序와 制度로서 表象化되어 있었다. 그러나, 西歐諸國에서 이러한 前近代의 遺産은 16~18世紀에 進行되었던 「文藝復興」(個人 및 그 創造性的 尊重), 「科學革命」(實證·實驗·實用精神의 尊重), 「宗教改革」(神으로부터 人間의 心理的 解放) 등을 통하여 서서히 瓦解되기 시작하였다.⁽⁴⁶⁾

그렇지만, 産業革命 初期에 이르러서도 勞動의 流動性을 制約하는 여러가지 前近代의 要因이 殘存하고 있었다. 西歐諸國 중 勞動의 流動性이 제일 먼저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英國의 경우만 해도, 엘리자베드 以來 200餘年間 持續되어 왔던 「貧民救濟法」(Poor Laws)의 封建的 恩惠主義에 의하여 勞動의 流動性이 크게 制約되었던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⁴⁷⁾ 勞動의 流動性이라는 점에서 가장 有利하였던 나라는 前近代의 遺産이 거의 없었고 進取的 開拓精神에 充만하였던 美國이었을 것이다.

封建的 束縛으로부터 勞動의 流動性이 확보되는 過程은 때때로 急進的·強壓的·破壞的으로 進行되었다. 일찍이 英國의 인클로저 運動이나 獨逸 東部の 슈타인-하이덴베르크 改革이 土地와 農民을 強壓的으로 分離시킴으로써 “自由 勞動者”를 量産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반대로, 프랑스의 自作小農經營(1789)年이나, 獨逸의 西部·西南部의 農地改革(1798)年 등은 土地分散을 초래하여 産業革命에 反動的이었던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더우기, 農地의 共同所有·共同課稅라는 制度的 裝置에 의하여 勞動의 流動性이 극히 制約되어 있었다는 점은 러시아의 産業革命이 강력한 國家主導下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障礙原因으로 꼽히고 있다.⁽⁴⁸⁾

이와 같이 19世紀 産業革命期에 勞動의 供給이 勞動의 需要에 伸縮的으로 適應하지 못하도록 하는 非經濟的 要因이 存在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간혹 不平等分配에 의한 資本蓄積의 主唱者들은 貧農 또는 프롤레타리아의 形成이 오늘날의 經濟開發에도 有益하리라는 主張을 하는 수가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의 低開發國家에서는 勞動의 流動性을 制約하는 類似한 非經濟的 要因의 存在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늘날의 대부분의 低開發經濟에서 不足한

(45) 農業社會에서의 村落은 遊牧社會의 경우 보다 人口集中的이었지만, 技術的 制約에 따라 都市로 발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46) B.E. Supple (1968), *op. cit.*, pp.18-19.

(47) 이러한 勞動流動性의 制約은 英國의 産業革命期 全般에 걸쳐서 婦女 및 未成年勞動者에 이르기까지 工場勞動時間을 거의 非人間的으로 延長시키도록 한 중요한 原因의 하나였을 것이다. 近代的 프롤레타리아의 形成은 英國의 경우에도 19世紀 中葉 이후의 일이다.

(48)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의 形成은 1890年代의 經濟成長 이후에 급속히 進行되었으며, 「第一 Russia 革命」(1905年)의 原因이 되었다.

것은 勞動의 流動性이나 供給이 아니라, 勞動에 대한 誘引 내지는 需要라는 점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産業革命期の 內包的 成長——全經濟的 平均生産性的 向上은 보다 生産성이 높은 部門으로의 勞動力的 集中 외에 各産業部門에서의 生産性的 向上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勞動生産性的 向上은 거의 모든 産業部門에 걸쳐 進행된 것이었지만, 그 중 近代工業部門에서의 生産성은 가장 急速히 向上되었다. 이는 물론 勞動의 利用方法의 變更에 크게 起因한 것이었지만, 勞動自體의 質 즉 技能의 向上이 附隨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近代工業에 必要한 技能工을 확보하는 一次的인 方法은 前近代의 工業에서 養成된 技能工을 吸收하는 것이었다.⁽⁴⁹⁾ 그러나, 産業革命期の 工場勞動者의 賃金 其他의 作業條件은 이들 技能工을 效果的으로 吸收할 만큼 良好한 것이 아니었다.⁽⁵⁰⁾ 이에 따라, 産業革命에 必要한 技能工의 調達은 技能의 “本源的 蓄積”에 의존하였다기 보다는, 企業家가 技能工의 教育訓練制度를 마련하고, 部分的으로 先進國의 技術者를 도입하고, 또는 機械改善에 의한 勞動의 單純化함으로써 解決되었던 것이다.

勞動의 質的 向上, 나아가 技術進歩의 根底에는 人間資本에 대한 投資 즉 教育이 놓여 있다. 教育의 效果에 대한 우리의 理解는 아직 未熟한 것이지만, 個人의 才能을 啓發하고 創造性과 成就欲求를 培養하며, 蓄積된 知識을 傳播하고 知識의 理解와 應用을 可能하게 하는 등, 經濟進歩에 있어서의 教育의 重要性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經濟學者들이 同意하고 있다.⁽⁵¹⁾

經濟成長에 있어서 教育의 效果를 구체적으로 評價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⁵²⁾, 獨逸의 技術教育制度⁽⁵³⁾, 美國 東北部の 強制教育制度⁽⁵⁴⁾ 등은 産業革命을 成功的으로 수행하도록 한 중요한 背景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다 最近의 例를 들자면, 日本과 西獨이 戰爭의 廢墟위에 5~20年の 短期間內에 經濟復興을 이룩하였던 것도 知識·熟練·企業家精神 등의 教育의 遺産에 크게 힘입은 것이며, 産業革命以後 美國의 持續的인 經濟進歩도 海外로부터

(49) 하바쿠크는 技能工의 存在를 産業革命의 成功的 模倣의 前提條件으로 들고, 獨逸·美國·프랑스, 日本, 러시아의 경우를 例示하고 있다. H.J. Habakkuk(1955), *op. cit.*, pp.38,47; 특히 日本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는 G.C. Allen, “Factors in Japan’s Economic Growth,” in C.D. Cowan e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Japan* (1964), rep. in H.Y. Byun ed. (1967), *op. cit.*, pp.469ff.

(50) 賃金과는 별도로 前近代의 工業의 匠人에 비하여 近代工業의 自由勞動者의 社會的 地位는 크게 劣惡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前近代의 工業이 가장 발달하였던 英國의 경우에도 近代工業에 必要한 熟練工의 不足은 심각한 것이었다.

(51) Cf. B. Higgins (1968), *op. cit.*, pp.410-11.

(52) Cf. *Ibid.*, pp.413-31.

(53) D.S. Landes (1960), *op. cit.*, p. 156.

(54) H.J. Habakkuk and M. Postan(1965), *op. cit.*, p.692.

의 莫大한 人間資本의 流入에 크게 依存하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III. 需要側 條件

前章에서 技術·資源·資本·勞動 등의 供給側 條件을 考察함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주로 企業家가 當面하는, 生産性向上 또는 生産費節減의 靜學的·動學的 條件에 주어 졌다. 그러나, 有利한 供給側 條件이 産業革命——工業化의 過程을 促進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되는 需要側 條件, 즉 市場開拓의 可能性이 存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産業革命의 과정을 理解하기 위하여 供給條件과 需要條件 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에 歷史의 어려움과 妙味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前章에서 考慮外로 하였던 需要側 條件을 明示的으로 考察하는 것이 이 章의 주요한 課題이다.

1. 市場條件과 主導産業

産業革命에 관한 傳統的 研究를 一瞥하면, 供給側 條件(技術, 資源, 資本, 勞動 등)이 需要側 條件(市場)보다 훨씬 強調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와같은 思考의 背景에는 供給側 條件이 本源的·硬直的인 데 비하여, 需要側 條件이 開發的·伸縮的이라는 認識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⁵⁾ 이러한 思想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세이의 法則으로 代表되는 일련의 販賣理論이다. J.M. 케인즈등이 批判한 바와 같이 세이의 法則의 理論的 不當性을 論議하는 것은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아니지만, 産業革命期의 市場擴大가 주로 工業部門에서의 所得增大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安易한 觀察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觀察은 흔히 販賣條件보다 生産條件을 問題視함으로써, 세이의 法則의 時代的 有效論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⁵⁶⁾

먼저, 우리는 세이의 法則이 自己完了的인 封鎖經濟를 대상으로 한 反面에, 당시의 産業革命 國家들은 植民地를 포함한 多數의 海外市場을 가지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英國은 美國 유럽大陸, 其他 植民地에 販賣되는 工產品의 要素所得을 대부분 國內에 떨어뜨림으로써, 工業社會의 有效需要를 세이의 法則에 의하여 描寫되는 것만큼, 오

(55) 물론, 供給中心의 思考가 分析的 接近을 용이하게 한다는 認識論의 背景도 있을 것이다.

(56) 이런 점에서, 自由放任主義의 旗手인 A. Smith가 그의 『國富論』(1776年)에서 市場의 重要性을 강조한 것이 産業革命의 經驗에 混同되기 前이었음을 주목할 만하다. 그에 의하면 生産性向上의 原動力이 되는 技術進步의 要諦는 分業에 있으며(序文에서 계획된 “進歩의 原因들” 중에서 실제로는 하나의 原因——分業만 취급되었다), 分業의 機會는 市場의 크기에 의하여 制約된다.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 Cannan ed.; New York: Random House, 1937), pp. lvii-lx and 3-21, 특히 p.17.

히려 그 以上으로까지 增大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⁵⁷⁾ 換言하면, 完全雇傭水準에서 貯蓄과 投資를 一致시키는 특별한 메카니즘이 存在했던 것이 아니라, 海外純投資(純輸出)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國內投資不足을 補充하고도 남았던 것이다.

더우기, 세이의 法則은 總計된 需要의 크기만을 描寫할 뿐이지, 産業革命의 理解에 중요한 需要의 構成 내지 그 變動을 무시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도 보듯이 工業部門에서의 所得의 一部가 土地나 貴金屬, 骨董品등에 대한 需要로 轉換된다면 工業部門의 擴散은 상대적으로 停滯될 것이며, 나아가 後述하는 바와 같이 工業部門내에서도 特定産業에서의 所得이 다른 工產品에 대한 需要로 轉換된다면 主導産業의 轉移를 惹起할 것이다. 工業部門 또는 主導産業이 급속히 成長하기 위해서는 內部經濟·外部經濟의 効益을 享有함은 물론 그 生産品에 대한 需要가 累積적으로 擴大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靜學的, 動學的으로 規模의 經濟를 누릴 수 있는 産業에 潜在的인 需要가 集中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供給側 條件과 需要側 條件은 우연히 一致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一方이 先行하고 他方이 자연히 符合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을 一致 또는 調整하는 것이 試行錯誤를 포함하는 企業家活動의 주요한 機能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需要의 性質 내지는 市場機會를 포착하는 企業家の 商人的 資質의 重要性을 強調한 C.H. 윌슨의 見解는 주목할 만하다.⁽⁵⁸⁾ “組織者”로서의 企業家に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機能은 生産, 供給할 特定製品에 대한 現在 또는 潛在하는 有利한 市場機會를 時宜適切하게 感知하는 것이었다.⁽⁵⁹⁾ 換言하면 市場機會는 生産組織, 技術革新에 대한 企業家の 努力의 방향을 규정짓는 중요한 基本條件이었던 것이다.⁽⁶⁰⁾ 市場機會가 産業革命을 유도하는 原動力이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産業革命期の 主導産業의 決定, 轉移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W.W. 로스토우가 指摘한 바와 같이, 雇傭, 産出의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超比例的

(57) 國內에 있어서도 비슷한 論議가 가능하다. 예컨대, 美國 南部 및 西部의 工產品市場은 美國 東北部의 工業發展에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었다.

(58) C.H. Wilson, “The Entrepreneur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Britain,”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Feb. 1955, rep. with omissions in B. E. Supple ed. (1963), *op. cit.*, p.176.

(59) cf. *Ibid.*, pp. 176-82; 金宗炫, “産業革命과 企業活動(其一),” 經濟論集, 1972年 6月, p. 14-15.

(60) 당시의 marketing 與件에 비추어(英國에서는 18世紀末 이미 新聞廣告가 있었다고 하나, 당시의 販賣促進活動은 전반적으로 消極的인 것이었다), 市場機會에 대한 企業家の 創造的 機能을 강조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않다. cf. 金宗炫(1973), 前掲書, p. 88. 당시의 企業家の marketing 活動은 市場機會를 洞察하고, 그 變化에 順應하고, 國內외의 既存市場을 浸蝕하는 등 보다 受動的인 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市場自體의 規模와 性質의 重要性이 論議될 수 있는 것이다. 金宗炫(1972), 前掲書, pp.21ff.

으로 急速한 成長을 이룩하는 특징한 産業部門에 의하여 經濟成長이 主導되어 왔다는 것은 産業革命의 두드러진 特徵의 하나이다. 英國 産業革命 初期의 主導部門은 織維工業 특히 綿工業이었으며, 이는 後續되는 各國 産業革命의 標準이 되었다. 1840年 이후 英國 産業革命은 鐵道·輸送産業에 의하여 主導되었으며, 1870年 이후에는 鋼鐵·汽船産業이 主導部門으로 등장하였다.⁽⁶¹⁾ 美國 産業革命 初期의 主導部門은 뉴 잉글랜드, 미들 아틀란틱 地方의 마사추세츠型 織維工業이었으며, 이후 그레이트 레이크스等地의 鐵鋼·交通設備, 製材, 印刷出版業이 主導部門으로 등장하게 된다.⁽⁶²⁾ 獨逸의 경우, 1830年代에는 작소니, 라인 地方의 織維工業이 産業革命을 義導하였으며, 1840年代 이후 보르지히, 질레지아, 라인, 웨스트파리아의 金屬工業 및 무르, 질레지아, 자르의 石炭鑛業이 主導部門으로 등장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프랑스 産業革命 初期의 主導部門도 노르만디, 알자스, 노오르等地의 綿工業과 리용의 絹工業이었으며, 르 크루소 製鐵소가 생긴 이래 알자스, 로렌, 노오르等地의 鐵鋼産業이 産業革命을 主導하게 되었다. 양상을 약간 달리하지만, 小規模의 勞動集約的 粗絹工業은 日本 産業革命의 거의 全期間(1870—1929年)에 걸쳐서 主導部門의 役割을 담당하였다.⁽⁶³⁾ 러시아의 경우, 國內 鐵道資材의 高價買入, 補助金 支給, 利潤保障, 金融 및 租稅政策上的 支援 등의 강력한 國家主導에 의하여 模倣된 鐵道産業은 뒤늦게 (1880年代 中年 以後)나마 급속한 工業化過程에 지렛대 役割을 하였다.⁽⁶⁴⁾

이러한 主導部門을 市場機會와 관련시켜 보는 것은 産業革命의 進行過程을 理解하는데 아주 有益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英國 産業革命 初期의 主導部門이 綿工業이었다는 사실은, 이에 관한 중요한 發明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가, 原綿 등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보다도⁽⁶⁵⁾, 生活必須品으로서의 衣類市場에 광범하게 浸透할 수 있었다는 점에 起因하는 것으로 보인다. 美國, 獨逸, 프랑스 등에서도 綿工業이 産業革命 初期의 主導部門이었다는 사실은, 一次的으로는 先進英國의 技術을 模倣할 수 있었다는 데 起因하겠지만, 그것이 成功的으로 擴散될 수 있었던 것은 保護政策 등에 의하여 英國 綿製品 支配下의 國內市場을 奪還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見解는 프랑스, 이태리 등 西歐諸國의 粗絹需要가 日本의 絹工業을 主導産業으로 등장시켰다든지, 英國 등의

(61) B.E. Supple (1968), *op. cit.*, p.22; 20C에 들어서서 英國의 産業이 世界市場에서 主導的 地位를 잃은 原因도 工學·石炭·鐵工業에서의 失敗로 보는 見解가 있다.

(62) H.J. Habakkuk and M. Postan (1965), *op. cit.*, pp. 680-705.

(63) G.C. Allen (1964), *op. cit.*, p. 472.

(64) A. Gershenkron (1962), *op. cit.*, pp. 30-31.

(65) 初期에 原綿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逆으로, 前近代의인 織維工業이 점유하였던 浸蝕possible한 衣類市場이 널리 存在하였다는 증거가 될수도 있다.

農産物需要가 네델란드의 農業革命을 가능하게 하였든지, 또한 輸出需要에 바탕한 鐵鑛·木材業이 스웨덴 産業革命 初期(19世紀末까지)의 主導部門이었다는 데에 이르기까지 광범히 支持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市場條件은 主導部門의 選別 내지 産業革命의 方向을 결정짓는 중요한 基本條件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國家의 政策的 干涉이 적을수록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다.⁽⁶⁶⁾

産業革命의 進行에 따라 主導部門이 轉移하는 과정에서도 需要側 條件의 重要性은 減少되지 않는다. 主導部門의 轉移를 理解하는 데 중요한 것은 前方 및 後方の 連鎖效果이다. 어떤 産業部門의 성공적 擴散은 그 產出品을 原材料로 하는 다른 産業(예컨대, 綿工業에 대한 縫裁業)의 發達을 促進할 수 있다.⁽⁶⁷⁾ 더우기, 主導部門의 發達은 中間投入物에 대한 誘發需要를 增大시키고, 나아가 所得向上을 통하여 最終需要를 高揚시킨다. 後者の 後方連鎖效果는 産業革命에서 보다 중요한 役割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産業革命의 중요한 特徵의 하나인, 生産機能의 垂直的 分化는 後方連鎖效果를 잘 反映하고 있다. 예컨대, 主導部門이 綿工業으로부터 機械工業, 鐵鋼工業, 石炭採鑛業, 鐵道産業⁽⁶⁸⁾ 등으로 轉移되는 과정은 技術條件의 變化보다도 그 生産品에 대한 中間需要가 충분히 成長하였다는 점에 起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實際로 消費財에 있어서도 所得效果가 産業構造 變動의 原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所得의 全般的 向上에 따라 耐久消費財 産業(예컨대, 美國의 스토브나 自動車 産業)이 發達하였던 것이라든지, 都市集中에 따라 都市 周邊에 각종 消費財工業이 발달하게 된 것이 그 例이다. 나아가, 前近代의 工業이 近代의 工業과 나란히 그렇게 오랫동안 存續될 수 있었던 것도 前近代的 工産品에 대한 誘發需要의 增大나 所得向上에 따른 最終需要의 增大를 무시하고는 說明하기 곤란할 것이다.⁽⁶⁹⁾

이와 같이, 産業革命의 動學的 過程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誘發需要의 內生的 變動過程을 추적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다만, 本稿의 관심은 産業革命의 基本的인 條件을 이해하는

(66) 供給側 條件이 충분히 友好的이라고 하더라도 産業革命 初期에서부터 鐵道나 自動車 産業이 主導部門으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의 鐵道産業은 國家介入의 극단적인 例로서 여러가지 犧牲을 수반하였다. A. Gerschenkron (1962), *op. cit.*, p. 31.

(67) 이러한 前方連鎖效果 외에 資本蓄積, 技能工養成 및 情數獲得, 在庫維持, 마케팅 등 費用節減의 外部經濟效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8) 반대로, 前方連鎖效果가 상대적으로 약했었다는 것도 主導部門이 주로 需要條件에 따라 選擇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69) 前近代의 工業은 産業革命의 特定期間 동안 번영하기 조차 하였다. 近代의 主導部門의 育成이 國家主導의 으로 추진될수록 民間部門의 自生的인 前近代의 工業과의 二重構造의 問題는 深化되었다. 러시아는 물론, 獨逸과 日本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을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데 있으므로, 特定經濟社會의 外生變數로 간주될 수 있는 最終需要 원래의 크기와 내용⁽⁷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2. 國內市場

經濟적으로 意味있는 國內市場이라 함은 대체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동일한 政治的·民族的 機構에 의하여 統治될 뿐만 아니라, 關稅 등의 商品流通 制約要因이 없거나 근소하여야 한다. 예컨대, 獨逸은 關稅同盟(1833年) 이후에 비로소 하나의 國內市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國內商品移動을 위한 交通手段이 어느 정도 整備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産業革命 初期의 美國에서와 같이, 人間의 大部分이 村落에 거주하고 이를 연결할 經濟的인 交通手段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하나의 國內市場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셋째, 商入活動의 自由가 어느 정도 保障되고, 商人組織의 基盤이 存在하여야 한다. 예컨대, 産業革命의 先頭走者인 英國은 18世紀 以前에 이미 이러한 條件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前提아래 우리는 비로소 國內市場의 크기를 論議할 수 있으며, 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두 要因은 (1) 人口와 (2) 所得水準이다.

이미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産業革命期는 前時代의 人口의 상대적 정체로부터 급속한 人口成長이 나타나는 기간과 일치한다. 예컨대, 美國의 경우 1815~1914년의 백년동안에 人口는 年平均 10%라는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英國과 獨逸의 年平均 人口成長率은 거의 2%에 육박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餘他の 西歐諸國에서도 비슷한 人口成長이 있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人口는 상대적인 정체를 보여 이 기간에 年平均 약 0.35%의 成長率을 보이고 있다.⁽⁷¹⁾

이러한 人口成長이 産業革命期의 勞動力供給 및 市場擴大에 미친 기여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⁷²⁾ 需要의 側面에 국한하여 보면, 人口增加가 消費의 外延의 擴散(widening in consumption)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人口를 所得이라든지 需要의 構成과 함께 고찰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産業革命과 人口成長의 因果關係의 方向을 識別하는 것은 실제로 극히 곤란하다.⁽⁷³⁾

(70) 여기서 最終需要라 함은 最終財에 대한 國內外 需要는 물론, 中間財에 대한 海外需要를 포함한다.

(71) 이것이 프랑스의 相對的 停滯性, 資本海外流出의 原因으로 指摘되기도 한다. R.E. Cameron (1958), *op. cit.*, pp.330-32.

(72) J.D. Chambers 등은 産業革命을 人口成長에 따르는 “自動的인 反應”으로 까지 보고 있다. cf. R.M. Hartwell (1965), *op. cit.*, p. 196.

(73) 맬더스의인 出生率의 增加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生活水準向上에 따른 死亡率의 減少(특히 醫療혜택의 보급에 따른 嬰兒死亡率의 減少)와 勞動需要增加에 기인하는 移民率 增加는 産業革命 — 人口成長간의 逆의 因果關係를 주장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人口成長과 産業革命 간에 一方의 因果關係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은 긴밀한 相互依存關係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우리의 判斷을 混同시키는 것은 先進國에서 産業革命의 促進要因으로 지적되는 人口成長이, 後進國의 경우에는 經濟成長의 效果를 阻害하는 制約要因으로 설명된다는 딜레마이다. 즉, 後進國의 경우에는 總國民所得의 향상이 人口成長에 의하여 相殺(또는 壓倒)되어, 土地·資本 등의 제한된 資源(收穫遞減의 法則)하에서, 1人當 所得이 停滯(또는 低下)되는 맬더스의 問題가 發生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非實際性⁽⁷⁴⁾과는 별도로 人口成長이 경제 성장에 有利 또는 不利하게 되는 어떤 基準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것은 民族主義의인 偏倚를 戒의한다면, 人口成長 자체는 所得 등의 기타의 要因과 종합적으로 考察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다.

英國의 경우에 18世紀 이전에 이미 農業生産性的의 급속한 向上 및 重商主義하의 貿易所得의 增大가 産業革命의 原因의 하나로 지적되지만 美國, 獨逸, 日本, 프랑스, 러시아등 産業革命을 成功的으로 模倣한 나라들도 産業革命의 개시 이전에 이미 상당한 所得의 向上이 있었다 예컨대, 美國의 경우, 南部의 綿花栽培 플란테이션의 生産性增大와 西部開拓地의 農業所得增大는 東北部 工產品에 중요한 市場을 提供하였다. 심지어, 가장 劣惡한 조건에 처해 있었던 러시아의 경우에도, 産業革命 直前의 1人當 所得은 지금 印度의 그것보다 높았었다고 한다.

工業部門의 生産품을 迅速적으로 需要할 수 있는 購買力의 增大는 農業部門의 生産性的의 增大에 크게 의존한다는 데에 대해서 大部分의 經濟史家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⁵⁾ 예컨대, W.J. 애슬리가 農業部門의 生産性的의 향상이 “産業革命의 先決條件이자 推進力”이라고 指摘하였던 외에도, A.H. 존, P. 딘, W.A. 코울 등이 海外市場의 중요성에 반대하고 農業部門의 所得增大와 人口成長에 기인한 國內市場擴大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⁷⁶⁾

所得의 크기와 더불어 所得의 分配도 市場의 크기에 관련시키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橫斷面 資料의 조사 또는 J.M. 케인즈의 “基本的 心理法則”에 의거하여 소득의 분배가 平等할수록 所得—消費率이 增加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不平等한 所得分布가 낮은 消費水準을 結果하여, 市場의 크기를 제약하였다고 지적되는 수가

(74) 이러한 論議는 印度, 中共, 臺灣, 자바, 실론, 에집트 등에서는 잘 부합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先進諸國을 且置하고라도, 얼마 전까지의 中東諸國, 아프리카諸國(우간다, 다호메이, 탕가니카, 나이제리아, 볼타 등 제외), 멕시코, 中南美諸國 등 人口稀少한 後進國을 고려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75) 歷史의으로 工業社會가 農業社會를 發판으로 발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工業部門에 대한 超過需要는 農業部門(또는 海外部門)으로부터 流入된 것이다. 이 점에서 産業革命의 진행 과정에서 持續的인 農業生産性的의 向上이 필요하였다.

(76) R.M. Hartwell (1965), *op. cit.*, pp. 194-96 *passim*.

많다.⁽⁷⁷⁾ 그러나,筆者로서는 所得의 分配가 消費水準을 下하시킨다든지 反대로 資本蓄積을 촉진한다든지 하는 믿음에는 실증적 증거가 빈약하며,⁽⁷⁸⁾ 所得의 分配는 오히려 이하 논의될 市場의 質, 즉 需要의 構成과 밀접하게 關聯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産業革命期의 企業家는 市場에서 현재적 또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需要를 洞察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중요한 機能으로 하였다. 企業家의 행동이 開發的이라기보다 順應的이었을수록, 需要——財貨種類別 需要의 크기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特定製品의 生産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企業家는 그 製品이 현재 어떻게 生産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生産될 것인가를 통찰하는 한편, 그 製品이 현재 어떻게 販賣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販賣될 것인가를 豫測하여야 한다. 이러한 洞察과 豫測은 당연히 不確實性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는 그러한 不確實性하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企業家가 當面하는 가장 직접적인 需要條件은 特定製品에 대한 需要의 크기이다. 따라서 人口와 所得에 의하여 描寫된 經濟社會 全體의 需要의 크기보다 그것이 어떤 製品에 어떻게 集中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市場의 크기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市場의 同質性”이다. 市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하더라도, 그 시장이 同質的이면, 특정제품에 대하여 집약적인 大規模市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⁷⁹⁾

市場의 同質性은 (1) 階層別·地域別 同質性의 정도와, (2) 所得의 分配를 중요한 要件으로 한다. 階層別·地域別로 상이한 趣向을 갖고 있던 프랑스, 印度 등보다, 傳統의인 취향이 없었던 美國의 경우가 보다 同質的인 市場을 제공하였음은 명백하다. 아마도, 보다 중요한, 뒤에는 점점 중요하게 되는 요인은 所得의 비교적 平等한 分配일 것이다. 所得分配 不平等度가 높을수록 사치품과 필수 기본품에 대한 市場의 異質性은 強化된다. 비교적 고른 所得分布는 模倣的 消費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마련한다. 프랑스의 奢侈品(귀금속등

(77) 프랑스 國民의 85%가 國富의 13%만을 所有하였다. 이러한 富·所得의 不平等分配가 프랑스의 消費性向을 위축시킨 主因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R.E. Cameron (1958), *op. cit.*, pp. 332-33.

(78) 橫斷面資料에서 발견된 경향이 所得再分配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그대로 사용될 수 없음을 明白하다. 相對所得假說이나 恒常所得假說의 견해와 비교하라. 아마도, 프랑스의 높은 貯蓄性向은 다른 經濟社會·文化的 要因과 關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9) R. Nurkse는 앞서提及한 低貯蓄의 惡循環論과 함께, “低需要의 惡循環論”(低需要→低投資→低資本→低生産→低所得→低需要)이라는 因果圖式을 제시한 바 있다. 低需要의 惡循環論이 比表面에서(우리에게는 比率——經濟成長率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앞서의 低貯蓄의 惡循環論과 背馳될 수 있는 점을 且置하고라도, 低所得 家國에서도 그 市場規模에 알맞은 需要集中·技術進步의 機會가 있으며 低需要의 制約은 주로 資本集約的, 大規模工場의 先進技術을 選好하는 이데올로기의 偏向의 所産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Cf. C.P. Kindleberger, *Economic Development*, 2nd ed.; McGraw-Hill, 1965, p. 5.

포함)과 農產品에 대한 需要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原因의 하나는 不平等한 所得分配에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같다.

다음에, 需要側 要因은 供給側 要因과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需要되는 財貨의 종류도 중요하다. 어떤 供給側의 要인은 開發的인 것이긴 하지만, 어떤 技術的인 要件은 그 財貨가 效果的인 工業生產品이 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쌀이나 밀에 대한 需要가 집중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工場에서 大量生産된다거나, 또는 外部經濟와 內部經濟의 效果를 누릴 수 있다거나, 누적적인 技術進步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유사하게, 프랑스, 러시아의 上流層 또는 美國南部의 大플란테이션 경영주들에 의하여 藝術品이나 화려한 手工藝品 또는 貴金屬에 대한 충분한 規模의 市場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工場이 나타난거나, 그것이 누적적으로 成長하리라고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産業革命이 效果的으로 擴散되기 위해서는 同質的인 需要가 外部經濟와 內部經濟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산업의 제품, 일반적으로 “單純基本財인 工產品”에 집중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需要의 構成과 관련하여 “新製品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다. 즉, 과거에 사용하던 재화를 새로운 工產品으로 代替하는 데는 물론, 전혀 새로운 工產品에 대해서 伸縮的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新製品에 대한 好奇心 또는 財貨支配權에 대한 강력한 選好가 필요하다. 이것은 프랑스(특히 上流層)에서처럼 “餘暇의 威嚴”을 숭상하는 기풍보다는, 獨逸, 美國, 日本에서와 같은 “勤勉精神”을 尊重하는 기풍이 産業革命에 유리함을 나타내는 內面的 理由일 것이다.

3. 國際市場

産業革命期는 自由貿易精神이 팽배하던 시기였으므로, 國內市場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를 獨立的으로 고찰하는 것만으로는 産業革命의 市場條件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産業革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國內市場을 效果的으로 保護하고 필요한 海外市場을 開拓하여야 했다.

日本을 제외한 당시의 相對的 後進國의 대부분은 國內의 輸入代替産業을 보호하기 위하여 英國으로 부터의 輸入品에 상당한 關稅를 賦課하였다. 關稅의 적절한 保護 아래, 그 産業은 國內市場에서 競爭力을 배양하여, 이윽고 海外市場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과정은 특히 獨逸과 美國에서 두드러진다. 獨逸은 産業革命 初期에 民族主義的 保護貿易論의 기치아래, 특히 金屬・纖維工業의 國內市場의 代替開發을 政策的으로 補助・支援하였으며, 뒤에 이들 工業은 성공적으로 國際競爭力을 배양하였다. 美國의 경우에

도, 「通商禁止法」(Embargo Act), 「反交換法」(Non-Intercourse Act)은 對英戰爭(1812—14年)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國內産業 保護의 기능을 수행하여 國內工業擴散의 계기가 되었으며, 해밀톤이래의 保護關稅政策은 綿工業⁽⁸⁰⁾ 등의 발달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眞正한 幼稚産業”⁽⁸¹⁾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에서 나타나지는 바와 같이 보호정책의 逆機能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거의 輸入 禁止의인 關稅는 企業家에게 恒久的인 경제 환경으로 간주되어, (1) 다른 産業國家와의 競爭動機를 둔화시켰으며, (2) 企業의 政府依存性을 강화함으로써 企業家精神의 발달을 저해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프랑스의 경우에는, 消費者의 항구적인 부담과 함께, 석탄수입에 관한 관세가 鐵鋼産業(中間消費者)에서의 石炭消費를 抑制시킴으로써 新技術의 도입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政府依存的인 輸入代替産業에 不過하였다.

幼稚産業은 識別하는 궁극적인 基準은 “學習(learning by doing)에 의하여 일정기간 후에 國際競爭力을 배양할 수 있겠는가?”에 달려있다. 아마 그 客觀的 基準은 要素賦存量이나 規模의 經濟가 作用하는 技術的인 條件이겠지만, 幼稚産業의 학습은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즉, 諸生産要素를 效果的으로 조직하고, 新技術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고,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企業家精神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 때로는 과도한 保護政策이 幼稚産業保護라는 美名下에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企業家精神을 萎縮시킬 수 있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歷史的 教訓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産業革命期の 西歐諸國은 重商主義의 전통아래 풍부한 海外市場과 活潑한 貿易을 행하고 있었다. 극단적으로 P. 만토에 의하여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商業的인 現象”이며, 貿易擴大의 “不可避한 結果”로 指摘된⁽⁸²⁾ 이후, W. 보오든, E. 립슨, H.J. 하바쿠크 등도 産業革命에 있어서의 海外市場의 主導的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⁸³⁾

특히, 英國이 17世紀 이래의 重商主義時代에 世界交易圈의 中心地이여 왔다⁽⁸⁴⁾는 사실은 英國이 産業革命을 先導하게 된 致命的인 原因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日本, 스웨덴, 네델란드의 産業革命도 海外市場의 存在를 빼놓고는 說明할 수가 없다.

(80) 1819年 綿製品에 대한 25%의 輸入關稅는, 특히 1819年 以來의 不況期에 效果的인 關稅障壁의 機能을 수행하였다.

(81) H.J. Habakkuk (1955), *op. cit.*, p. 48.

(82) P. Mantaux,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French original, 1906; English translation, London, 1928, p.487; R.M. Hartwell (1965), *op. cit.*, p.194.

(83) *Ibid.*, pp. 194-95.

(84) P. Deane에 의하면, 그것은 다시 船員 等人的 資源의 存在, 英國國民의 進取性·自由性, 信用組織의 發達 등에 起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內市場과 海外市場의 중요성을 비교할 만한 어떤 普遍性을 抽出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예컨대, 美國이나 獨逸은 國內市場의 代替開發만으로도 훌륭히 産業革命에 進入할 수 있었다. 반대로, 多數의 植民地를 가졌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20世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産業革命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産業革命開始에 있어서 海外市場存在의 必須性을 부인하고, 다시금 國內市場의 重要性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진입된 産業革命의 動學的 擴散過程에서 海外市場이 “成長의 推進力”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IV. 結 語

우리는 어떠한 方法으로라도 諸般 現實問題에 對處하여야 하므로, 産業革命이라는 귀중한 經驗을 歷史的 個別體로 묶어 두고 不可知論으로만 일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거꾸로, 産業革命으로 부터 성급한 一般化를 일삼아 오늘날의 現實에 직접 適用하고자 하는 것도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本論議에서 筆者는 이러한 兩極端論을 배격하는 데서 出發하되, 19世紀 産業革命의 歷史的 經驗으로부터 오늘날의 低開發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諸問題에 관하여 有益한 情報를 抽出할 수 있으리라는 期待 아래, 産業革命의 內在的인 普遍性——經濟成長의 基本條件을 발견하고자 努力하였다. 적절한 比較史的 研究는 歷史一般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促進시켜 주고, 經濟的理論에서 看過하기 쉬운 經濟成長의 諸側面에 대한 우리의 視角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特定한 바람직한 要因과 狀況을 受容, 誘導, 促進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要因 내지는 狀況을 排擊, 抵抗, 制約하는데 有用한 情報를 提供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本論議에서 示唆되어 온 몇가지 結論을 명백히 진술하여 批判을 기대하고, 이를 오늘날의 低開發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歷史的 狀況⁽⁸⁵⁾에 비추어 간략히 檢討하는 것이 有益하리라고 생각한다.

(1) 技術: 技術進步는 産業革命의 要諦를 이루고 있으나, 그것은 知識의 累積의 蓄積의

(85) 오늘날의 低開發國家들이 西歐諸國의 文藝復興, 科學革命, 宗教改革, 市民革命과 유사한 歷史的 經驗을 갖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歷史的·文化的 背景의 特殊性이 民族主義的 立場에서 강조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筆者의 見解로는 오늘날 대부분의 低開發經濟가 自意的으로 들 他意的으로든 經驗한 西歐文明의 大學流入은 그러한 歷史的 差異의 影響을 적어도 經濟現象의 측면에서는 훨씬 덜 중요한 要因으로 變質시켰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오늘날의 後進國이 19世紀의 相對的 後進國에 비하여 갖는 基本的인 特色은 이들이 多數의 先進諸國과 政治的, 經濟的으로 긴밀하게 接觸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로 부터, 經濟的 緊張은 한층 심화되었으며 自生的·漸進的 經濟開發에 만족할 수 없는 강력한 國力培養의 ایده올로기가 形成되는 것이다. “빨리 큰 工場을!” 원하는 것은 19世紀의 러시아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自生的 結果는 아니었다. 技術進步의 前提로서의 發明은 餘地의 條件에 따라 誘導되기도 하고 棄却되기도 하는 것이다. 産業革命의 先頭走者인 英國의 경우, 生産技術은 다른 經濟 與件의 성숙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달하였으므로, 그 吸收(技術進步)는 自生的으로 원만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英國의 先進技術에 접하였던 당시의 相對的 後進國은 그 模倣(技術進步)에 있어서 後進性에 비례한 강력한 國家의 支援政策을 필요로 하였다.

오늘날 先進諸國의 科學技術은 모든 低開發經濟가 有利하게 利用할 수 있는 “技術의 저수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先後進國間 技術水準의 차이는 19世紀에 있어서 보다 더욱 深化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先進技術의 存在는 漸進的 技術開發의 機會를 빼앗을 수도 있으며, 또한 先進諸國에 맞도록 유도된 特化技術이 無批判的으로 導入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2) 資源: 主導産業 및 그 補助, 補完産業에 필요한 天然資源, 특히 石炭과 鐵의 賦存量은 産業革命의 중요한 關鍵이었다. 水運, 鐵道 등의 大量輸送手段은 産業革命의 擴散過程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相對的 後進國은 輸送手段에 대한 國家主導의 投資에 의하여 産業革命을 促進시킬 수 있었다.

오늘날, 技術進步에 따라 石炭의 重要性이 減退하고 石油가 새로운 資源으로 등장하여 으며, 에너지源의 변천은 앞으로도 世界經濟의 主要變因으로 주목되고 있다. 오늘날의 低開發國家들은, 中東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大部分 資源貧國에 속하므로, 資源節約의 技術의 開發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아마도,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大量輸送手段의 缺乏은 그 동안의 集中的 投資에 따라 일단 解消된 것으로 보인다.

(3) 資本: 資本은 資本主義的 經濟成長의 중요한 說明變數로 지적되어 왔지만, 産業革命期에 있어서 資本의 原始蓄積·海外資本의 役割은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相對的 後進國에 있어서는 國力培養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銀行 내지는 國家의 介入에 의하여 資本集中을 촉진하기도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産業資本의 源泉은 相對的으로 높았던 利潤의 끊임없는 再投資였던 것이다.

오늘날, 資本의 流動性은 충분히 증진되었으며, 株式會社를 비롯한 效果의인 資本集中方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資本集約的 先進技術의 選好傾向은 資本不足을 低開發經濟의 심각한 問題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不足한 資本의 補充을 위하여 先進國資本이 크게 利用되고 있다. 小規模資本에서 출발한 끊임없는 技術開發과 再投資라는 産業革命의 經驗은 귀중한 歷史的 教訓이 될 것이다.

(4) 勞動: 産業革命期 工業勞動力의 중요한 源泉은 급격한 人口增加와, 前近代的 制約으

로부터 解放된 自由勞動者들의 流入이었다. 近代의 工業에 필요한 技能工들은 前近代의 工業으로부터 보다는 教育訓練, 機械改善, 또는 감정적으로 또는 海外 技術者의 導入에 의하여 調達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低開發經濟는 충분한 勞動力을 공급할 만한 人口成長을 維持하고 있으며, 勞働의 流動性은 충분히 保障되고 있으므로, 강제적 조치에 의한 自由勞動者의 形成이 필요하다는 것은 역사적 환상에 불과하다. 教育 및 技術訓練制度가 광범히 보급되었으나, 先進技術에 적합한 技能工의 養成 및 人力資源의 海外流出은 低開發經濟의 問題로 남아 있다. 經濟成長에 先行하여 급속한 都市集中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勞働組合이 새로운 壓力 團體로 등장하여 企業家는 社會福祉制度의 一部를 부담하게 되었다.

(5) 市場: 製品의 販賣는 主導部門의 選定, 轉移과정에서 보듯이, 產業革命期에 있어서 도 生産 못지 않게 중요한 問題였었다. 產業革命期의 企業家는 市場機會를 捕捉하는데서 출발하였으며, 前近代의 工業의 市場을 浸蝕하거나, 國內外的 潛在市場의 開發하거나, 相對的 後進國의 경우에는 國家의 保護아래 國內市場을 代替함으로써 市場을 확보하였다. 특히, 國內市場은 幼稚產業의 育成을 통하여 相對的 後進國이 產業革命에 진입하는 발판이었다. 國內市場이 적절히 統合되어 있다는 前提下에, 農業所得의 增大와 人口成長에 의한 市場規模의 擴大는 물론, 單純基本財인 工產品에 集中되는 市場의 同質性도 產業革命에 필요한 重要な 條件이었다. 당시의 自由貿易精神下의 풍부한 海外市場은 產業革命의 擴散過程에 있어서 중요한 推進力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 國內 市場의 統合은 거의 完全하며, 流通組織과 販賣促進手段이 크게 발달되었다. 또한 人口成長과 더불어 消費水準도 크게 向上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工業優先政策에 의한, 農業生産性向上이라는 배경의 缺如는 二重構造의 問題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所得의 不平等分配는 市場의 同質性을 해치는 要因이 되고 있다. 大規模市場을 전제로 하는 先進 技術의 導入은 市場狹小의 問題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低開發經濟의 주요한 海外市場인 先進諸國은 保護主義的 傾向을 強化하고 있으며, 後進國의 交易條件은 점점 惡化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輸入依存的 工業化 政策은 後進國의 外貨不足을 심각한 問題로 浮上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國內市場을 발판으로 독립적으로 成長할 수 있고, 가끔적 많은 前後方連鎖效果를 國民經濟가 享有할 수 있는 產業政策이 要請되고 있다.

물론 產業革命은 이들 諸要因의 相互作用의 結果이며, 이들을 個別的으로 論議하는 것이 상당한 限界를 가짐은 이미 누누히 언급되어 왔다. 相互作用關係의 綜合的인 表現은 主導 部門이 결정되고, 內部・外部經濟에 따라 가속적으로 확산되고, 連鎖效果에 따라 轉移되는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市場의 機能과 관련하여 主導部門을 論議하였지만, 그 自體로서도 產業革命의 綜合的 過程을 理解하는 데 중요한 主題일 것이다. 이에 덧붙여, 經濟的 環境은 產業革命의 主體인 企業家나 政策當局의 性向에 따라 相異한 影響을 미칠수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經濟的 環境에 綜合的으로 反應하는 企業家精神의 形成의 背景——예컨대, 幼少年期の 學習環境이나 價值觀을 형성하는 社會·文化的 背景——이나 經營諸側面에서의 行動樣式을 研究하거나, 나아가 全經濟與件에 組織的·非競爭的으로 作用하는 政策當國의 行動樣式——특히, 國力培養의 이데올로기나 官僚的 行政組織의 行動樣式——을 研究하는 것도 產業革命을 보다 완벽하게 理解하기 위한, 중요한 分野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관한 研究는 다음 機會로 미루지만, 이러한 制約에도 불구하고 本稿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經濟成長의 基本條件으로서 19世紀 產業革命의 經濟的 環境을 比較史的으로 研究하는 것은 歷史로서 뿐만 아니라 理論·政策의 兩面에서 다같이 중요한 關心分野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產業革命의 歷史的 經驗은, 참으로 여러가지 점에서, “충분히 쥐어 짜지지 않은 오렌지”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宗炫, “工業化의 諸條件과 戰略에 관한 比較史的 研究,” 經濟論集, 1971年 6月, pp. 1-48.
- , “產業革命과 企業家活動(其一),” 經濟論集, 1972年 6月, pp. 1-24.
- , “產業革命과 企業家活動(其二),” 經濟論集, 1973年 3月, pp. 43-122.
- 金鎮泰, “人文科學에 있어서의 說明과 理解,” 李奎浩外編, 社會科學의 方法論, 玄岩社, 1974, pp. 108-40.
- 吳甲煥, “社會學 理論의 普遍性問題,” 上揭書, pp. 258-75.
- 吳德永, 經濟史研究, 志凡社, 1960.
- 李奎浩, “社會科學方法論의 哲學的 反省,” 李奎浩外編 (1974), 前揭書, pp. 10-28.
- , “社會科學方法論의 哲學的 反省 再論,” 上揭書, pp. 48-72.
- 李永鎬, “社會科學의 經驗的 接近法,” 上揭書, pp. 29-47.
- Abramovitz, M., “Resources and Outpu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ince 1870”, *N.B. E.R. Occasional Paper*, 52, 1956.
- Allen, G.C., “Factors in Japan’s Economic Growth,” Cowan, C.D. e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Japan*, 1964, rep. in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1967, pp. 468-80.

Ashton, T.S., "The Relation of Economic History to Economic Theory," *Economica*, May 1946, pp. 81-96.

_____,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Great Britain," in his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pp. 1-22, ext. in Supple, B.E. ed., *The Experience of Economic Growth*, Random House, 1963, pp. 146-58.

Cameron, R.E., "Economic Growth and Stagnation in France: 1815—1914," in *Journal of Modern History*, Mar. 1958, rep. in *Ibid.*, pp. 328-39.

Clapham, J.H., *The Study of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1929.

_____, "Economic History as a Discipline,"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 New York, Macmillan, 1930, rep. in Falkus, M.E. ed., *Readings in the History of Economic Growth*, Oxford Univ. Press, 1968, pp. 415-20.

Clough, S.B. and Cole, C.W., *Economic History of Europe*, 2nd ed., Boston, D.C. Heath & Co., 1947.

Cole, A.H.,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conomic History*, 1946, rep. in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pp. 1-15.

Deane, P. and Habakkuk, H.J., "The Take-off in Great Britain," Rostow, W.W. ed., *The Economics of Take-off into Sustained Growth*, 1963, rep. in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pp. 318-37.

Fairbank, J.K., Reischauer E.O., and Craig, A.M., *East Asia: The Modern Transformation*, Modern Asia ed., Houghton Mifflin—Charles E. Tuttle, 1965.

Fohlen, C., "La rivoluzione industriale in Francia," *Studi Storici*, II, 1961, trans.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France," in Cameron, R.E. ed., *Essays in French Economic History*, Richard D. Irwin, 1970.

Friedman, M.,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in his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1953, ext. in Joseph, M.L. &c. eds.,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Prentice-Hall, 1963, pp. 5-9.

Gerschenkron, A.,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idem ed.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2, rep. in Byun, H.Y. eds. (1967), *op. cit.*, pp. 16-41.

_____, "The Early Phases of Industrialization in Russia: Afterthoughts and Counterthoughts," in Rostow, W.W. ed. (1963), *op. cit.*, rep. in *Selected Articles in*

- Economic History*, pp. 382-400.
- Habakkuk, H.J., "The Historical Experience on the Basic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in Dupriez, L.H. ed., *Economic Progress*, 1955, pp. 149-69, ext. in Falkus, M.E. ed. (1968), *op. cit.*, pp. 33-48.
- Habakkuk, H.J. and Postan, M., *The Industrial Revolutions and After: Incomes, Population and Technical Change*, Cambridge Univ. Press, 1965.
- Hagen, E.E.,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62, 金環東譯, 經濟社會學, 乙酉文化社, 1965.
- _____,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59.
- Hartwell, R.M.,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 Essay in Methodology," *Economic History Review*, Aug. 1965, rep. in Byun, H.Y. ed. (1967), *op. cit.*, pp. 189-207.
- Heaton, H., *Economic History of Europe*, revised ed., Harper & Row and John Weatherhill, 1948.
- Heckscher, E.F., "A Plea for Theory in Economic History," *Economic History, Supplement to the Economic Journal* 1926-29, I, pp. 525-34, rep. in Falkus, M.E. ed. (1968), *op. cit.*, pp. 421-30.
- Higgins, B., *Economic Development*, revised ed., W.W. Norton, 1968.
- Hoffman, W.G., "The Take-off in Germany," in Rostow, W.W. ed. (1963), *op. cit.*, rep. in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pp. 338-61.
- Hoselitz, B.F., *Sociological Aspects of Economic Growth*, Adaptation ed., Feffer and Simons, 1960.
- Kindleberger, C.P., *Economic Development*, 2nd ed., McGraw-Hill, 1965.
- Landes, D.S., "French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 Growth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y 1949, rep. in Supple, B.E. ed. (1963), *op. cit.*, pp. 340-53.
- _____,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ineteenth Century Germany," in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History: Proceedings*, 1960, pp. 83-86, rep. in Falkus, M.E. ed. (1968), *op. cit.*, pp. 155-58.
- _____, "The Old Bank and the New: The Financial Revolution of the Nineteenth Century," F. Crouzet &c. ed., *Essays in European Economic History: 1789-1914*, Ed-

- ward Arnold, 1964.
- Marshall, T.H., "The Population Problem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Sept. 1929, rep. in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pp. 258-82.
- McClelland, P.D., *Causal Explanation and Model Building in History, Economics and New Economic History*, Cornell Univ. Press, 1975.
- North, D.C., "Industria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Rostow, W.W. ed. (1963), *op. cit.*, rep. in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pp. 401-19.
- Nurkse, R.,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Univ. Press, 1953.
- Redlich, F., "'New' and Traditional Approaches to Economic History and Their Interdependenc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Dec. 1965, rep. in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pp. 57-72.
- Schumpeter, J.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 Press, 1949.
- Selected Articles in Economic History*,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 Univ., 1967.
- Supple, B.E., "The Historical Approach to Economic Growth," in Falkus, M.E. ed. (1968), *op. cit.*, pp. 11-31.
- Wilson, C.H. "The Entrepreneur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Britain,"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1955, pp. 129-45, rep. in Supple, B.E. ed. (1963), *op. cit.*, pp. 171-88.